

## 어떤 언어가 한국의 사회갈등을 부추기는가? 사회범주 및 고정관념 의사소통 모형을 중심으로

이 동 훈<sup>†</sup>

한국은 계층, 성별, 세대, 정치이념, 종교 등 다양한 이슈에 있어 높은 사회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갈등의 현황과 유형을 파악하거나, 사회갈등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관리 방향을 거시적 관점에서 모색하는 정치, 행정, 사회학 분야의 연구는 적지 않지만, 개인들의 의사소통과정에서 사회갈등이 증폭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심리학적 연구는 많지 않다. 본 논문은 한국의 사회갈등을 언어적 의사소통 관점에서 고찰하면서, 어떤 언어가 사회갈등을 조장하는지 그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Beukeboom과 Burgers(2019)가 제안한 사회범주 및 고정관념 의사소통 모형(Social Category and Stereotypes Communication Framework)을 소개하고, 이 모형을 통해 의사소통 과정에 사용되는 언어적 명칭과 서술 편향이 어떻게 사회범주에 대한 고정관념을 형성하고 강화할 수 있는지 그 심리적 메커니즘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모형을 한국 상황에 적용하여, 한국의 성별, 세대, 이념/정치적 갈등을 조장하는 몇 가지 언어적 명칭과 서술 편향을 살펴보면서 그 영향력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수롭지 않게 사용하는 언어의 미묘한 차이가 사회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음을 주장하면서, 앞으로 실증 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사용되는 언어적 명칭과 서술 편향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사회갈등, 사회범주, 고정관념, 범주 실체성, 범주 본질주의, 명칭 편향, 고정관념-불일치 편향

† 교신저자 : 이동훈,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Email: [dhlee@pusan.ac.kr](mailto:dhlee@pusan.ac.kr)



Copyright ©2024,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언어로 말미암아 더욱 깊어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강을, 그리고 나와 나 사이의 넓어지는 강을 들여다 보면서도 이 언어에 의하지 않고는 강의 폭이 좁아질 수 없다는 이율배반적인 가능성 때문일까?”

- 박경리 <꿈꾸는 자가 창조한다> 중에서

언어는 인간이 발전시킨 독특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다른 동물과 비교할 때 가장 차별적인 능력이며, 인간이 이룩한 모든 지적 성취들이 언어와 문자에 기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어는 근본적으로 의미없는 소리에 의미를 부여하여 사용하는 기호체계이며, 형태소나 단어와 같은 기본적인 단위를 조합하여 더 큰 단위의 의미를 생성, 표현할 수 있는 고도로 발달한 상징 시스템이다 (Chomsky, 1986). 인간은 자신이 경험한 세계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언어를 통해 표현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 타인의 행동과 태도에도 변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Holtgraves & Kashima, 2007). 그러므로 언어는 의사소통을 위한 사회적 도구이며, 한 사회의 문화적 결정체이다(Borghini et al., 2019). 그러나 모든 도구가 그렇듯, 언어가 항상 바람직한 방향으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이 사람과 저 사람을 구별하는 차별의 도구가 되기도 하며, 신체 폭력보다 더한 정신적인 폭력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 소통의 도구로 발전, 사용되어온 언어가 어떻게 차별과 폭력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이 역설적인 측면은 언어를 둘러싼 연구들이 풀어야 할 학문적 과제임이 분명하다.

본 고에서 나는 한국에서 심화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갈등의 원인을 언어적 의사소통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물론, 언어 그 자체

가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없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을 여러 사회범주로 구분하고 구분된 사회범주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언어가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어떤 언어 표현들이 사회갈등을 심화시키는지, 그리고 그 표현들은 어떤 심리적 기제로 그러한 기능을 하는지 그 원리적인 측면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에 앞서 먼저 사회갈등의 정의부터 살펴 보고자 한다. ‘갈등(葛藤)’은 칩과 등나무라는 뜻으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칩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함. 또는 그런 상태”를 지칭하는 말이다. 따라서 갈등은 개인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사회집단 간에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을 대인갈등(interpersonal conflict)으로, 사회집단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사회갈등(social conflict)으로 구분할 수 있다.

Hocker와 Wilmot(2017)은 대인갈등을 ‘양립 불가능한 목표, 부족한 자원, 그리고 목표 달성에 대한 상대방의 방해’를 지각한 두 상호의존적인 당사자가 표출한 분쟁’이라고 정의함으로써 개념적 이해를 도왔다. 갈등의 당사자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며, 이들이 각자가 원하는 목표 상태가 양립할 수 없다고 지각하거나,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각하여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행동을 취할 때 갈등은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 정의에서 주목할 점은 갈등의 원인이 당사자들의 지각(perception)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즉, 목표의 양립 불가능성이나 자원의 부족 등은 어떤 실질적인 입계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갈등에

웁싸이는 당사자들이 서로 각자가 원하는 목표가 양립할 수 없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라 '지각할 때 발생하고, 자원의 경우 서로 나눈다고 해도 불충분할 것이라고 '지각할 때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갈등의 이해와 해결에 있어 갈등의 원인이 되는 실질적 이해관계의 파악도 중요하겠지만, 갈등을 경험하는 당사자들의 심리적 지각 과정도 역시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사회갈등(social conflict)은 갈등 당사자를 개인 차원에서 집단 수준으로 높여, 사회 조직이나 지역, 인종, 세대, 성별, 종교 등 집단을 구분할 수 있는 다양한 기준에 의해 구별될 수 있는 집단 간에 발생하는 갈등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갈등에 대한 사회과학적 정의는 고려할 사항이 많아 학자들에 따라 관점이 다양하다고 한다(Schellenburg, 1982; Susskind et al., 1999). 먼저, 집단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다. 특정 이익집단처럼 구성원들의 소속감이 분명하고 추구하는 목표나 가치를 공유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정 기준에 의해 집단을 나누더라도 소속감이 없거나 추구하는 목표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경우(예, 세대 갈등, 성별 갈등)도 많다. 둘째, 대인간 갈등에 비해 갈등의 쟁점이 구체적인 자원 배분이나 목표 상태의 충돌이 아니라, 이념이나 가치관, 신념에 바탕을 둔 심리적 갈등이 문제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연구에 따라 사회갈등을 물질적 욕구 갈등과 가치 갈등으로 구분하고, 갈등 발생의 원인과 갈등 해결주체에 따라 하위 갈등유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유희정, 이숙중, 2016).

본 고에서 언급하는 사회갈등은 특정 이익 집단 사이에 양립할 수 없는 목표를 두고 벌어지는 구체적인 갈등이 아니라, 집단의 구분

이나 소속감이 불분명하고, 추구하는 목표나 가치도 분명히 공유하지 않는 암묵적인 사회 집단, 즉, 세대, 성별, 이념 갈등과 같이 추상적인 사회집단의 심리적 갈등을 주로 지칭한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사회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써 대중 언론매체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대화 속에서 사용되는 언어 표현의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네덜란드 Vrije 대학의 Camiel J. Beukeboom과 Christian Burgers가 제안한 사회범주 및 고정관념 커뮤니케이션 모형(Social Categories and Stereotypes Communication Framework)을 먼저 소개한다. Beukeboom과 Burgers(2019)는 어떤 사회적 범주에 대한 고정관념이 언어를 통해 어떻게 언중들 사이에 공유되고 확산되는지 이 모형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진행되는 의사소통 과정에 사용되는 언어적 편향(linguistic biases)에 주목하였으며, 어떤 사회범주를 지칭하는 명칭과 행동 및 성격 특성을 서술할 때 나타나는 편향이 어떻게 그 사회범주에 대한 구분과 고정관념을 강화시키고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된 인식을 만드는지 그 인지적 메커니즘을 제안하였다. 이 모형은 편견과 집단 극화에 대한 다른 사회심리학적 연구와 달리, 사회갈등과 관련된 직접적인 요인들을 다루기보다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사용되는 미묘한 언어의 효과를 다루는 점에서 특이점이 있다. 나는 이 모형이 한국에서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언어의 문제를 심리학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모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의 사회갈등을 유발, 심화할 수 있는 언어적 명칭과 서술 편향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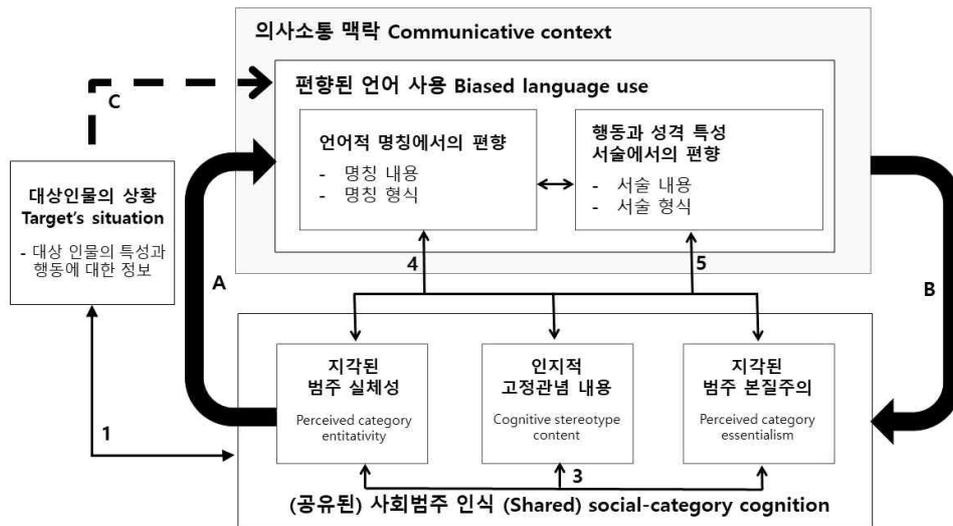
사회범주 및 고정관념 커뮤니케이션 모형

사회 생활 속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사회 범주화(social categorization)는 그 사람에 대한 지각과 판단, 그리고 상호작용에 영향을 준다. 사회 범주화는 인지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때때로 그 사회범주에 대한 고정관념(stereotypes)을 불러일으켜 편견과 차별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Fiske & Neuberg, 1990; Moskowitz, 2005). 어떤 사회범주에 대한 고정관념은 개인의 인식 수준을 넘어,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일종의 공유된 지식(shared knowledge)이라 할 수 있는데, Beukeboom과 Burgers(2019)는 사회범주에 대한 고정관념이 어떻게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유된 지식으로 생성, 유지되고 변화될 수 있는지, 그 역동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언어의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Beukeboom과 Burgers(2019)는 어떤 대상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사용되는 언어적 편향들(linguistic biases)이 사회범주를 형성하기도 하고 그 사회범주에 대한 고정관념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역동적 메커니즘을 사회범주 및 고정관념 커뮤니케이션 모형(Social Categories and Stereotypes Communication Framework)으로 설명하였다(그림 1).

그림 1은 어떤 대화의 초점이 되는 대상의 상황(target's situation), 즉 그 인물의 특성이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의사소통 맥락(communivative context)에서, 편향된 언어 사용(biased language use)이 사회범주에 대한 (공유된) 인식(shared social-category cognition)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도식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편향된 언어 사용은 크게 언어적 명칭에서의



(출처: "How stereotypes are shared through language: a review and introduction of the social categories and stereotypes communication (SCSC) framework. by C. J. Beukeboom & C. Burgers, 2019. *Review of Communication Research*, 7, p. 6. figure 1.)

그림 1. Beukeboom과 Burgers(2019)의 사회범주 및 고정관념 커뮤니케이션 모형

편향과 행동과 특성 서술에서의 편향으로 나누어지고, 언어적 명칭에서의 편향은 명칭 내용과 언어적 형식 측면으로, 서술에서의 편향은 서술 내용(무엇)과 서술의 언어적 형식(어떻게)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언어적 명칭의 편향과 서술 편향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아래 사회적 범주에 대한 (공유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때 사회범주에 대한 인식은 그 범주에 대한 지각된 범주 실체성(perceived category entitativity), 인지적 고정관념 내용(cognitive stereotype content), 그리고 지각된 범주 본질주의(perceived category essentialism)로 구성된다. 그리고 편향된 언어 사용은 사회범주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의사소통 참여자들은 공유된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다시 편향된 언어 사용을 하는 되먹임(feedback) 과정(A, B)을 가정하고 있다. 이 모형을 이해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있을 법한 어떤 인물에 관한 대화 상황을 상상해보자.<sup>2)</sup>

### 대상 인물의 상황 입력

예를 들어, 회사에서 새로 들어온 신입 직원의 행동과 특성에 대해 기존 직원 두 명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상황을 떠올려보자. Beukeboom과 Burgers(2019)는 이러한 대화가 대화의 초점이 되는 대상 인물의 특정한 상황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다루는지, 혹은 같은 내용을 일반화하여 다루는지 그 정도가 다양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Beukeboom과 Burgers(2009)는 이러한 대화 상황에서 그 대상 인물에 대한 정보에 대해 Beike와 Sherman(1994)이 설명

한 사회적 추론(social inference)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Beike와 Sherman(1994)은 사회적 정보를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누었는데, 먼저 가장 낮고 구체적인 수준으로 특정 개인 또는 어떤 사회범주 구성원이 특정 상황에서 한 행동에 대한 정보가 있다(예, “어제 회식에 그 신입직원은 불참했었어.”). 이러한 정보는 직접 관찰했거나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알게 된 것일 수 있다. 중간 수준의 정보는 그 개인의 성격 특성과 같은 것이다(예, “그 신입직원은 이기적이다.”) 이 경우 여전히 특정 개인을 지칭하지만, 특정 상황에서의 행동을 성격 특성으로 일반화한 것이다. 마지막 가장 높은 수준은 특정 개인의 행동을 어떤 사회범주의 특성으로 기술하는 것이다(예, “요즘 MZ들은 이기적이다.”).

Beike와 Sherman(1994)는 세 수준의 정보 사이에서 세 가지 종류의 추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는데, 먼저, 가장 낮은 수준의 수준에서부터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귀납적 추론(inductive inference)은 개별 사례와 구체적 행동에 대한 정보를 통해 특정 사회범주에 대한 일반화된 기대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반대로 가장 높은 수준에서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추론은 연역적 추론(deductive inference)으로, 어떤 사회적 범주에 대한 일반화된 생각(즉, 고정관념)을 통해 개별 구성원의 특성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세 번째 종류의 추론은 유추(analogy)로서 같은 수준의 정보에서 일어나는 추론이다. 예를 들어, 개인이나 범주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통해 그것과 연합된 정보를 추론하는 것이다(예, “MZ들은 이기적이다. 그래서 그들은 버릇이 없다.”).

Beukeboom과 Burgers(2019)는 대화 참여자들이 사회범주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

2) 본 논문에서 사용한 예시는 Beukeboom과 Burgers(2019)에서 사용된 예시를 번역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사회갈등 상황과 한국어 특성을 고려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는지 그 수준에 따라 대상인물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다르며(1번 화살표), 이에 따라 의사소통 상황에서 처음 사용하는 언어적 편향 수준이 다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화살표C). Beukeboom과 Burgers(2019)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사용하는 언어적 편향이 특정 사회범주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일반화한 커뮤니케이션이 사회 범주화와 고정관념을 공유하게 만든다고 주장하였다.

#### (공유된) 사회범주 인식

어떤 언어적 편향이 사회범주의 고정관념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알아보기 전에, 이 모형에서 가정하고 있는 사회범주 인식을 먼저 살펴보자. Beukeboom과 Burgers(2019)는 어떤 사회범주에 대한 인식은 지각된 범주 총체성, 인지적 고정관념 내용, 지각된 범주 본질주의로 구성된다고 하였고, 각각의 구성요인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지각된 범주 실체성.** 지각된 범주 실체성(perceived category entitativity)은 어떤 사회범주가 느슨한 개인들의 집합이 아닌, 하나의 응집적이고 통합적인 의미있는 실체로 지각되는 정도, 즉 ‘실체성을 갖는’ 정도를 말한다(이향수, 박상희, 2017; 하창현, 박상희, 2022). 지각된 범주 실체성은 범주 구성원들의 유사한 지각적 세부특성에서 기인할 수 있지만(Dasgupta et al., 1999), 지각적인 측면 외에도 유사한 성격 특성, 같은 역사적 배경이나 공유된 경험, 같은 문화적 배경 또는 사회화 과정, 공동의 목표를 위한 조직된 집단행동 등 집단의 구성원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을 수 있는 공통성(commonality)이 있는 경우에도 형성될 수 있다.

**인지적 고정관념 내용.** 인지적 고정관념 내용(cognitive stereotype content)은 사람들이 어떤 사회범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지적 표상의 내용으로, 그 범주 구성원들의 성격 특징, 세부특성, 행동 경향성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말한다(Dovidio et al., 2010). 인지적 고정관념 내용은 범주 구성원들의 지각적 특성이나 행동에 대한 관찰에서 귀납적으로 구성될 수 있지만, 여러 개인과 상황에 대한 일반화된 사회정보로 인해 연역적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지각된 범주 본질주의.** 지각된 범주 본질주의(perceived category essentialism)는 어떤 사회범주와 연합된 성격 특성이나 고정관념적인 특성들이 시간과 상황에 상관없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지각되는 정도를 말한다(Beukeboom & Burgers, 2019). 예를 들어, 인종이나 성별과 같은 사회범주는 어떤 깊은 수준에서 천성(nature)이나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생물학적 본질을 갖고 있어서, 이 본질을 공유하는 구성원들은 근본적으로 서로 유사하며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행동 특성을 지닐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김신우 등, 2021; Gelman, 2003; Haslam et al., 2000). 그러나 어떤 유전적 요인을 전혀 공유하지 않는 사회범주도(예, 진보/보수, 신세대/구세대) 본질적인 성향을 가진 것으로 지각될 수 있다.

Beukeboom과 Burgers(2019)는 사회범주의 인식을 구성하는 이 세 가지 요인이 서로 관련성을 가지며 영향을 주고 받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특히 지각된 범주 실체성과 지각된 범주 본질주의는 정적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

### 편향된 언어 사용

Beukeboom과 Burgers(2019)는 위에 설명한 사회범주 인식이 형성되고 공유되는 과정에 편향된 언어 사용이 중요한 역할은 한다고 가정하고, 의사소통 과정에 사용되는 언어적 편향을 먼저 언어적 명칭에서의 편향과 행동과 특성 서술에서의 편향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언어적 명칭에서의 편향은 언어적 명칭의 내용과 형식에서의 편향으로, 행동과 특성 서술에서의 편향은 서술의 내용과 서술 형식의 편향으로 세분하여 각각을 고찰하였다.

**언어적 명칭에서의 편향.** 명칭은 기본적으로 어떤 대상이나 집단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 명칭이 가리키는 대상이 ‘책상’과 ‘의자’ 같은 실제 존재하는 사물 범주인 경우도 있지만, ‘자유’나 ‘평등’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일 수도 있다. 명칭은 일차적으로 어떤 대상이나 집단을 지칭하기 위해 부여하지만, 그 명칭으로 불러질 수 있는 것들과 그 명칭으로 불러질 수 없는 것들(혹은 다른 명칭으로 불러지는 것들)을 구분하고 변별하는 심리적 과정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학자들은 명칭이 다양한 수준에서 대상들의 구분과 범주적 지각(categorical perception)<sup>3)</sup>을 촉진시킨다고 주장하였다(예, Fugate, 2013; Lupyan, 2012; Roberson & Davidoff, 2000). 따라서 사회범주에 대한 명칭은 그 범주와 다른 범주를 구분하는

3) 범주적 지각이란 범주내(within-category) 대상들은 보다 유사하게, 범주간(between-category) 대상들은 보다 다르게 지각하는 현상으로, 음소, 색상과 기본적인 지각 범주(예, Repp, 1984; Witzel & Gegenfurtner, 2013)에서부터 얼굴표정, 인종과 같은 사회집단 범주까지 다양한 층위에서 관찰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예, Ertcoff & Magee, 1992; Levin & Angelone, 2002).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지각된 범주 실체성 및 지각된 본질주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명칭과 연합된 의미들이 사회범주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성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Beukeboom과 Burgers(2019)는 사회범주에 대한 언어적 명칭의 영향력을 명칭의 내용과 형식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명칭 내용에서의 편향.** 어떤 사람(들)을 어떤 사회범주 명칭으로 지칭할 때, 분류학적 위계를 바탕으로 상위 수준(superordinate level), 기본 수준(basic level), 하위 수준(subordinated level) 범주명을 사용할 수 있다(Rosch et al., 1976). 수준간 경계는 명확하지 않지만, 상위에서 하위 수준으로 내려갈수록 그 범주의 범위는 좁고 세분화되며 일반적으로 구체화된다. 상위 수준의 범주로 성별, 인종, 출신국가나 지역 등을 구분하는 명칭을 예로 들 수 있는데(예, 남성/여성, 한국인/외국인), 기본 수준 범주명(예, 직업명- 의사, 노동자)과 결합하여 하위 수준의 범주를 지칭하기도 한다(예, 여의사, 외국인 노동자).

명칭이 지칭하는 사회범주의 범위나 크기 외에도 명칭의 의미에 따라 그 의미와 연합된 감정과 고정관념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녀’, ‘가정부’, ‘가사도우미’는 유사한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지만, 존중의 정도가 다르고 명칭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이나 고정관념이 다르다. 유사한 예로 미국에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African American)을 지칭하는 말인 Negro와 Black은 매우 다른 어감을 갖는다. 따라서 어떤 사회집단을 지칭하는 명칭이 갈등을 심화시킨다고 판단될 경우, 캠페인이나 교육을 통해 특정 명칭 사용을 제한하고 대안 명칭 사용을 권고하기도 한다.

특정 집단이나 대상을 혐오, 비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비속어들은 비하의 의미를 담은 접두/접미사를 사용하거나(예, ‘개-’, ‘흙-’, ‘줄-’, ‘새-’, ‘맹-’, ‘따-’, ‘충-’, ‘혐-’), 명칭 자체에 부정적인 어감을 가진 단어들을 수식어로 사용하기도 한다(예, ‘변태-남’, ‘악질-녀’, ‘찌질-남’, ‘된장-여’).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접사나 단어를 집단 명칭에 사용할 경우 그것과 연합된 부정적인 감정과 의미는 그 사회범주에 대해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다.

*명칭 형식에서의 편향.* 명칭 내용에서의 편향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어쩌면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에 비해 명칭 형식에 의한 편향은 보다 은밀하다. Beukeboom과 Burgers(2019)는 사회범주를 지칭하는 명사의 사용 여부에 의한 편향과 사용되는 명칭의 총칭성(genericity)<sup>4)</sup>에 따른 편향을 나누어 살펴보

4) 총칭성(genericity)이란 특정의 개체나 집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어구의 용법을 말하며(유유현, 2010), 총칭 명사구(generic noun phrases)와 총칭문(generic sentences)을 나누어볼 수 있다(전영철, 2003). 총칭 명사구는 어떤 종류에 대한 지시(reference to a kind)의 의미를 가지며, 반대되는 개념으로 낱개체 지시(reference to an object) 명사구가 있다. 영어에서는 주로 girls와 같이 원형-복수(bare-plural)형으로 표현되며, 정관사+단수명사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 한국어에서는 일본어와 중국어와 유사하게 원형단수(bare singular)를 주로 쓴다. 한국어에서 ‘-들’과 같이 복수접미사를 붙인 원형복수는 총칭적 해석보다는 복수 개체를 지시하는 해석이 더 강하다(전영철, 2003:273). 그리고 한국어의 경우, 주격조사 ‘은/는’을 붙일 때, ‘이’가보다 총칭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유유현, 2010). 방지은과 최영은(2014)은 실

고 있다. 먼저, Beukeboom과 Burgers(2019)는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성격 특성을 서술할 때 형용사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사회범주를 나타내는 명사를 사용할 때 고정관념이 더욱 쉽게 활성화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그는 보수적이다”와 같이 형용사를 사용하여 서술하는 것에 비해 “그는 보수주의자다.”와 같이 명사를 사용하여 서술할 경우, ‘보수주의자’라는 사회범주의 명칭과 연합된 고정관념이 더욱 쉽게 활성화될 수 있다. 그리고 명사는 어떤 범주이거나 아닌 경우를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발생시키지만, 형용사의 경우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예, 조금, 덜, 매우 - 보수적이다). 따라서 형용사에 비해 명사는 지각된 범주 실체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명사를 사용하여 어떤 사람을 지칭할 때, 총칭성(genericity)이 높은 표현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비총칭적인 표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지각된 범주 실체성과 지각된 범주 본질주의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 1) cats have tails라는 문장과 2) the cats have tails, 그리고 3) the cat has a tail과 같은 문장은 총칭성 측면에서 다른데, 문장 1)은 ‘고양이는 꼬리가 있다’는 일반적인 사실을 기술하는 문장으로 총칭성이 높은 표현인 반면, 2)와 3)은 특정한 몇몇 고양이나 한마리의 고양이의 특정 사례를 기술한 문장으로 비총칭적인 표현이다. Beukeboom과 Burgers(2019)는 총칭성이 높은 명칭을 사용할 때 특정 사회범주의 범주 실체성과 범주 본질주의적 지각이 높아

험을 통하여 한국어 총칭 표현이 주로 원형단수 형태와 조사 ‘은/는’과 함께 나타나는 경향을 확인하였으며, 만 3세 아동도 총칭 표현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질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Gelman과 동료들의 아동 인지발달 연구(예, Gelman et al., 1998; Gelman et al., 2010; Rhodes et al., 2012)를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 Gelman 등(2010)은 학령전 아동들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Zarpies”라 불리는 범주의 새로운 동물에 대한 그림책을 보여주면서, 이 동물에 대한 여러 사실들을 학습시켰다. 이때, 사실들의 표현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으로 조작되었다: 1) 총칭 명칭 조건(예, “Zarpies hate ice cream”), 2) 특정 명칭 조건(예, “This Zarpie hates ice cream”), 3) 무명칭 조건(예, “This hates ice cream”). 실험 결과, 다른 두 조건에 비해 총칭 명칭 조건으로 학습한 참가자들이 그런 사실들을 Zarpie의 범주 속성(category-property)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높았고, 새로운 Zarpie가 나타났을 때 그 속성을 새로운 Zarpie도 가졌을 것이라고 일반화하는 경향이 높았다. 그리고 총칭 명칭 조건으로 학습한 경우 이러한 속성들을 태생적이고 시간에 불변하는 범주 본질주의(category essentialism) 속성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높았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행동 특성을 기술할 때, 그 사람을 어떤 사회범주를 가리키는 총칭 명칭으로 지칭하면, 그 특성을 사회범주의 본질적인 속성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높아질 수 있다(예, “MZ는 회식에 오지 않는다”).

**행동과 특성 서술에서의 편향.** 어떤 범주가 하나의 의미있는 총체로 지각되어 이름이 붙으면, 지각자는 그 범주 전체에 본질적인 고정관념적 특성들을 형성하고 발달시킬 수 있다. Beukeboom과 Burgers(2019)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고정관념이 조장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커뮤니케이션 서술 편향을 내용과 형식적인 면에서 각각 분리하여 고찰하

였다.

**서술 내용에서의 편향.** Beukeboom과 Burgers(2019)는 어떤 사회범주에 관한 대화 속에서 그 사회범주의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정보가 고정관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에 비해 더 많이 서술되는 편향이 있다고 하면서, 그러한 편향을 고정관념-일치성 편향(stereotype-consistency bias)이라고 기술하였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알콜중독자’라고 명명하면, 그의 행동 중 알콜중독자의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행동에 대한 서술(예, ‘그 알콜중독자는 오늘 술을 마셨다’)이 고정관념과 일치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서술(예, ‘그 알콜중독자는 오늘 주스를 마셨다’)보다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Beukeboom과 Burgers(2019)는 고정관념의 내용과 일치하는 서술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반복 재생산되면서 특정 사회범주에 대한 고정관념이 구성원들 사이에서 확산 공유된다고 하였다.

Beukeboom과 Burgers(2019)는 고정관념에 일치하는 행동이나 특성에 대한 서술은 고정관념을 공유하는 구성원들 사이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며, 또다시 결속력이 강화된 구성원들은 특정 사회범주와 일치하는 고정관념에 대한 언급을 다시 반복함으로써 고정관념에 대한 믿음을 범주 본질적인 것으로 간주한다고 보았다. Beukeboom과 Burgers(2019)는 이렇게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서술이 일치하지 않는 서술보다 더 많이 반복 재생산되는 이유는 이것이 관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 중 상대방이 공감해주는 것을 더 많이 이야기하려 하고, 이것은 서로에 대한 유사성이나, 선호, 수용가능성을 높인다고 보았다(Bratanova & Kashima,

2014). 따라서 공유된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내용에 관한 대화는 좀더 쉽고 부드럽게 진행되는 반면, 기존의 고정관념과 불일치하는 내용에 대한 대화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선호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Beukeboom과 Burgers(2019)는 고정관념-일치성 편향을 조절하는 요인으로 의사소통 맥락과 고정관념적 견해를 말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허용 수준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의사소통 상황에서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일반화된 서술을 멀리하고, 특정 개인의 개별적 상황이나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권장한다면 고정관념-일치성 서술은 줄어들 수 있다. 나아가 고정관념적 믿음에 근거한 편견적 표현을 용인하지 않는 사회적 규범이 존재한다면 고정관념-일치성 서술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Crandall et al., 2002).

*서술 형식에서의 편향.* Beukeboom과 Burgers(2019)는 어떤 사회범주로 명명된 사람의 행동이나 특성에 대한 서술의 형식적 측면도 고정관념의 형성과 공유에 암묵적이지만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하였다.

첫째, 서술의 추상성(abstraction) 수준을 고려할 수 있다(Semin & Fiedler, 1988). 어떤 행동을 서술할 때, 구체적인 행위 동사로 서술할 수도 있고(예, she kicks him), 조금 더 추상적으로 상태동사를 사용해서 서술할 수도 있고(예, she hates him), 아니면 아예 형용사로 서술할 수도 있는데(예, she is aggressive), 추상적으로 서술할수록 고정관념 형성과 범주 본질주의적 지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았다(예, “그 남자는 울고 있다” vs. “그 여자는 감정적이다”). 둘째,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서술에 비해 불일치하는

서술의 경우 부연 설명문이 뒤따라오는 경향이 많다(예, “그 남자는 울고 있다. 왜냐하면 그가 오늘 힘든 일을 겪었기 때문에”). 셋째,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서술에 비해 불일치하는 서술의 경우, 부정문(negation)이나 반어법(irony)을 사용한 경우가 많다(예, “그 남자는 용감하지 못해!”, “그 여자는 진짜 용감해!”)

즉, 어떤 사람의 행동을 기술할 때 구체적인 행위 동사나 상태 동사에 비해 추상적인 형용사로 서술할 경우 고정관념 형성과 범주 본질주의적 지각을 유발하며,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서술은 간단한 반면, 고정관념과 불일치하는 서술은 부정문이나 반어법을 사용하여 특별한 사례나 상황으로 기술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Beukeboom과 Burgers(2019)의 사회범주 및 고정관념 커뮤니케이션 모형을 설명하였다. 다음 절에는 이 모형을 토대로 한국의 세대, 성별, 이념/정치 갈등과 같은 사회갈등과 언어적 편향과의 관계를 언어적 명칭과 서술 차원으로 구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한국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언어적 편향에 대한 고찰

한국은 식민지 시대와 6.25전쟁 이후 압축적인 경제성장과 빠른 사회 민주화 과정 속에서 많은 사회갈등이 발생하였지만, 이를 적시에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갈등을 축적해 온 ‘갈등 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서문기, 2004). 국민들의 사회갈등에 대한 우려와 걱정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지만(이승모 등, 2019), 이를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정치사회적 능력은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었다(권경득, 임동진, 2017).

한국사회의 갈등수준을 측정하고, 갈등유형별로 원인 및 관리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한 유희정과 이숙중(2016)의 연구에 따르면, 시민들은 계층, 계급 갈등과 이념갈등을 공공 및 지역 갈등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갈등 쟁점에 노출된 확률이 높을수록 갈등을 높게 지각하였다. 언론학자 이재경(2008)은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심화시키는 과정에 신문과 방송사, 인터넷 매체 등 미디어의 역할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며, “갈등유발형 저널리즘”의 원인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미디어 이용과 공공갈등 인식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전형준(2010)의 연구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보수로 분류되는 언론매체를 접하는 응답자들은 진보로 분류되는 언론매체를 접하는 응답자에 비해 우리 사회의 공공갈등이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즉 사회갈등의 지각 수준이 자주 접하는 매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문이나 뉴스, 인터넷 매체와 같이 사회적 사건들을 보도하는 방식에 따라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일반인들이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도 사회갈등을 조장하거나 증폭시키는 도구가 되기도 하며, 높은 사회갈등이 새로운 언어적 표현이나 단어를 산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사회언어학자인 이정복(2024)은 2000년 이후 만들어진 새말(즉, 신조어) 가운데 ‘갈등 관계’를 나타내는 새말을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는데, 국립국어원에서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약 20년간 조사 발표한 513개의 새말을 분석한 결과 성별 갈등과 관련된 새말이 32%로 가장 많았고, 세대, 직업, 계층 갈등과 관련된 새말도 다수 등장하였음을 보였다(이정복, 2024, p.77). 특히 성별

갈등 새말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결과, 2000년부터 약 10년 동안 조금씩 증가하다가 2008, 2009년에 최고 수준에 이르고, 이후 서서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정복(2024)은 2010년 전후로 성별 갈등이 표출됨으로 인해 성차별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받아 이와 관련된 연구와 여성운동이 증가하여 성별 갈등 새말이 점차 줄어든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정복(2024)의 연구는 사회갈등과 언어가 유기적 관계를 맺으며 서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연구라 할 수 있다.

특정 사회집단을 지칭하는 명칭과 사회갈등과 차별의 문제를 다루는 연구도 존재한다(박재홍, 2009; 이길용, 2009). 예를 들어, 박재홍(2009)은 세대명칭과 세대갈등에 대한 담론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하였는데, 동시대에 존재하는 특정 코호트를 어퍼어퍼한 세대라 부르는 것은 실제로는 연속선상에 있는 사람들을 세대명칭 생산자 또는 사용자의 임의적 기준에 따라 증화하고 차별화하는 행위로 보면서, 이렇게 세대의 명칭을 부여하는 행위가 종종 세대차이를 과장하고, 세대 간 갈등을 조장, 심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박재홍(2009)의 연구 외에도 세대에 대한 구분 자체가 세대주의적 세대담론을 부추긴다는 비판적 시각이 다수 존재한다(예, 김선기, 2014; 조성남, 윤옥경, 2000). 이길용(2009)은 장애인 차별 언어에 대한 비장애인(일반인)의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병신’, ‘저능아’, ‘애꾸눈’, ‘무뇌아’와 같은 명칭은 매우 차별적으로 인식하였고, 상대적으로 ‘장애자’, ‘농아인’, ‘맹인’, ‘장애우’와 같은 표현은 차별성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일상생활이나 미디어 매체에서 사용되는 언어와 사회갈등 및 차별의 관계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다루고 있지만, 왜

어떤 언어적 명칭과 표현이 차별을 불러일으키고 사회갈등을 증폭시키는지 그 심리적 기제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앞서 소개한 Beukeboom과 Burgers(2019)의 사회범주 및 고정관념 커뮤니케이션 모형을 바탕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갈등인 성별, 세대, 이념 갈등을 조장하는 언어적 편향을 명칭과 서술 차원에서 살펴본다.

**한국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명칭 편향에 대한 고찰.** Beukeboom과 Burgers(2019)는 어떤 사회범주에 대한 고정관념을 형성,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언어적 명칭의 영향력을 명칭의 내용과 형식적인 측면에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사회범주를 구분하는 명칭의 사용여부와 그 형식적 측면이다.

Beukeboom과 Burgers(2019)는 어떤 대상의 행동이나 상황을 기술할 때, 그 대상을 특정 사회범주로 지칭하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지각된 범주 실체성(entativity)을 높이며, 사용되는 명칭이 총칭적일 때, 그 범주에 대한 기술이 지각된 범주 본질주의(essentialism)를 높인다고 하였다. 이를 한국의 사회갈등 상황에 비추어 보면, 성별, 세대, 이념 성향을 기준으로 하위 대립적인 범주로 구분하는 명칭의 사용이 지각된 범주 실체성을 높이며, 그 범주에 대한 고정관념을 그 범주의 본질적 속성으로 인식하도록 만든다고 할 수 있다(표 1 참조). 예를 들어, 세대를 구분하는 새로운 명칭(신세대, X세대, 386세대, IMF세대, MZ세대 등)의 등장은 그 세대의 범주 실체성을 높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대 구분적 명칭은 유독 한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박재홍, 2009), 세대 명칭을 생산하는 주체는 언론과 방송매체, 기업

및 광고회사, 정치권, 학계이며, 한번 주목받은 세대명칭은 온라인 및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됨으로써 확대, 재생산된다(예, SBS 미래팀, 2021). 이렇게 등장하는 새로운 세대명칭은 그 세대의 정의나 범위도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것이 실체성을 가진 집단으로 지각되도록 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특정 개인의 행동이나 특성을 기술할 때, 그를 특정 세대로 총칭하는 단어(즉, 총칭명사구)를 사용하여 지칭한다면, 개인의 행동을 그 세대의 본질적 특성으로 일반화하여 고정관념을 조성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예, “MZ는 회식에 자주 빠진다”).

호규현 등(2023)은 MZ세대에 대해 미디어가 묘사한 내용과 실제 MZ세대에 포함되는 구성원의 인식 차이를 심층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미디어에서 묘사된 MZ세대 조직원은 개인주의적이고, 거침없이 의견을 표현하고, 조직에 헌신하지 않는 ‘까다로운 개인주의자’로 인식한 반면, 실제 MZ세대로 분류될 수 있는 연구참여자들은 조직에 대한 가치, 직업에 대한 가치, MZ세대 개념에 대한 태도 측면에서 매우 다양하게 분화되었다. 호규현 등(2023)은 연구결과를 종합하면서, 미디어를 통해 묘사되는 ‘까다로운 개인주의자’는 사실 ‘까다롭지만 개인주의는 아닌’, ‘개인주의자지만 까다롭지 않은’, 혹은 그 무엇에도 해당되지 않은 이들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직 내의 ‘MZ세대’ 개념에 대한 무분별한 남용은 비판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성별이나 이념 갈등을 부추기는 명칭들도 다수 존재하는데(표 1 참조), 남성과 여성, 좌파와 우파와 같이 이분법적 구분을 특징으로 하는 이러한 명칭들은 상대편을 조롱, 혐오하

표 1. 성별, 세대, 이념 갈등을 조장하는 명칭 내용 및 형식의 예\*

	명칭 내용	명칭의 형식
성별 갈등	1. 성별을 구분하는 명칭 (예, 여의사/여교수/남동생/여동생 짱돌이/짱순이/ 안티맨/안티걸 등) 2. 혐오와 조롱의 의미가 담긴 형태소 및 단어가 결합된 명칭 (예, 한남/한녀, 개똥녀/변태맨, 짹벌남/된장녀)	1. 성별을 구분하는 명칭의 사용 여부 (예, 그녀는 솜씨 좋은 여의사/의사이다.) 2. 총칭명사구의 사용여부 (예, 남자는 울지 않는다./ 여자는 말이 많다.)
세대 갈등	1. 세대를 구분하는 명칭 (예, 신세대/X세대/386세대/MZ세대 등) 2. 혐오와 조롱의 의미가 담긴 형태소 및 단어가 결합된 명칭 (예, 원세대/N포세대/개저씨/짹민이/틀딱/꼰대)	1. 세대를 구분하는 명칭의 사용 여부 (예, 너두 MZ세대니?) 2. 총칭명사구의 사용여부 (예, MZ는 개인적이다/노인은 잔소리가 많다)
이념 갈등	1. 이념/정치 성향을 구분하는 명칭 (예, 진보/보수/좌파/우파/파란당/빨간당 등) 2. 혐오와 조롱의 의미가 담긴 형태소 및 단어가 결합된 명칭 (예, 빨갱이/좌썸/수꼴보수/꼴통우파)	1. 이념/정치 성향을 구분하는 명칭의 사용 여부 (예, 그 형은 꼴보수다/ 그 친구는 완전 좌빨이다) 2. 총칭명사구의 사용여부 (예, 진보는 항상 불만이 많다/ 보수는 꼴통이다)

\* 여기 소개된 예시 중 다수는 인터넷 신조어로 국립국어원에 등록되지 않은 말들이다. 이러한 표현들이 인터넷상에서 어떻게 생성되고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알아보려면 인터넷 위키백과 사이트([https://ko.m.wikipedia.org/wiki/대한민국의\\_인터넷\\_신조어\\_목록#ㅎ](https://ko.m.wikipedia.org/wiki/대한민국의_인터넷_신조어_목록#ㅎ))를 참고할 수 있다.

는 의미의 형태소나 단어가 결합된 형태로 표현된다는 것이 특징이다(예, 개똥녀/변태맨, 짹벌남/된장녀, 빨갱이/좌썸/수꼴보수/꼴통우파 등). 즉, 이러한 혐오 명칭은 명칭의 내용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명칭의 사용은 특정 사회집단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자연스럽게 점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혐오와 조롱, 비하의 의미를 담은 명칭들이 편파적인 인터넷 커뮤니티나 Youtube 방송 등에서 생산,

보급되며, 상대 범주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형성하고 과급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김지수와 윤석민(2019)은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여성혐오발언이 특정 성별, 특정 연령대의 팬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사용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종의 비즈니스 도구가 되는 점을 강조하였다.

성별, 세대, 이념 이외에도 지역, 계층, 장애, 인종/국가, 종교 등 다양한 사회범주를 구분하는 명칭과 거기에 조롱과 비하의 의미를 담은

말을 덧붙여 사용되는 혐오 명칭의 해악과 관련하여 다양한 담론과 사회, 언어학적 연구가 진행되었다(예, 김하수, 조태린, 2008; 박대아, 2021; 윤하나, 김상호, 2018; 장경현, 2021; 황슬하, 강진숙, 2014 등). 그러나 이러한 혐오 명칭이 얼마나 특정 사회범주 집단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강화시키고, 사회갈등 수준을 높이는지 그 심리적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는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사용되는 사회범주 명칭의 사용 여부 및 총칭적 표현의 사용이 특정 사회범주에 대한 범주 실체성 및 범주 본질주의의 지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명칭에 내포된 혐오적 내용이 특정 사회범주의 고정관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심리학적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서술 편향에 대한 고찰.** Beukeboom과 Burgers(2019)는 어떤 사람의 상황을 서술하는 의사소통 맥락에서 그를 특정 사회범주로 지칭하고, 그 행동이나 특성을 서술할 때, 서술의 내용과 형식도 사회범주의 고정관념의 형성과 사회적 공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첫째, 서술의 내용적 측면에서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정보에 대한 서술이 일치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서술보다 더 많이 이루어지는 고정관념-일치성 편향이 고정관념의 사회적 공유를 확대한다고 하였다. 둘째, 서술 형식에서는 추상적 서술이 고정관념 형성과 범주 본질주의의 지각을 높인다고 하였고, 고정관념과 일치하지 않는 서술의 경우, 부연 설명문을 붙이거나 부정문, 또는 반어법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를 한국의 몇몇 사회갈등 상황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해볼 수 있다. 먼저, 어떤 개인이 특정 사회범주의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행동을 하였을 때, 그것에 주목하고 그 행동을 서술하는 경향이, 불일치하는 행동을 했을 때 서술하는 경향보다 더 높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에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 회식에 빠졌을 때, 그 신입사원의 행동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은 서술을 할 수 있다. “하여간 MZ는 회식을 좋아하지 않아.” 그 신입사원이 다음 회식에 참가할지, 실제로 회식을 좋아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빠졌는지, 다른 기존 직원들의 회식 참여율에 비해 더 낮은지 등, 정확한 정보 없이 이러한 서술을 하는 것은 그 개인을 특정 세대로 범주화하고, 개인의 일회적 행동을 그 세대의 특성으로 기술함으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서술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서술을 더욱 추상화하여, “MZ는 개인주의적이다.” 라고 기술한다면 회식에 빠진 행동을 개인주의적이라는 성향으로 일반화하여 기술함으로써, 그러한 성향을 범주 본질주의적인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을 높이는 서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사회범주의 고정관념과 불일치하는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기술한다면, “MZ가 회식에 다 참가를 하네! 오늘 메뉴가 마음에 들었나봐.” 같이 부연 설명문을 달거나, “MZ가 회식에 빠지지 않을 것 같아.”와 같은 부정문으로 표현하거나, “MZ는 일하는 것보다는 회식을 좋아하지” 와 같은 조롱섞인 반어법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연지영과 이훈(2020)은 유머로 포장된 혐오표현이 한국 사회의 젠더갈등을 심화시킨다고 보고, 그 효과를 온라인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였는데, 참가자들은 다른 성별에 대한 혐오에 유머를 더했을 때 그 혐오에 대한 심각성을 낮게 지각하는 경향을 보여,

유머스러운 표현이 심각한 혐오표현에 비해 젠더 갈등을 조장하는데 일조할 수 있음을 보였다.

Beukeboom과 Burgers(2019)는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서술이 일치하지 않는 서술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이유로 이러한 서술을 포함한 대화가 같은 집단 구성원들의 결속력을 강화시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동일한 입장과 의견을 가진 이들이 배타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소속감을 높이며 외집단에 대한 배타성과 혐오를 재생산하는 일종의 에코 챔버(echo chamber) 효과로 간주해볼 수 있을 것이다(Colleoni et al., 2014). 이와 관련해서 한국인의 문화적 특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양정은(2019)은 한국인들이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서로 다른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청취하기보다 의견의 일치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집단주의 문화의 영향으로 사회적 대립을 회피하고 자신의 체면이나 유대감이 위협받을 수 있는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집단내 의사소통에서 외집단의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서술이 이루어질 때, 이에 반대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서술을 하기보다 일치하는 서술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할 경향이 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Beukeboom과 Burgers(2019)는 고정관념-일치성 편향을 조절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고정관념적 견해를 말로 표현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 사회적 규범이나 도덕의 존재 유무를 들었다. 현재 한국 사회는 다양한 차원에서 사회갈등이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사회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적 규범을 제대로 만들고 있지 못하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사회갈등을 심화시키는 차별과 혐오 표현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도 아직 미비한 시점이다. 따라서 특정 사회범주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고정관념 일치 서술 편향은 법적, 제도적 제제가 아직 작동하지 않는 익명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는 현실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홍주현, 나은경, 2016).

##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은 한국에서 심화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갈등의 원인을 언어적 의사소통 측면에서 고찰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Beukeboom과 Burgers(2019)의 사회범주 및 고정관념 의사소통 모형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의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언어적 편향들을 살펴보았다.

Beukeboom과 Burgers(2019)는 사회범주를 지칭하는 언어적 명칭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 사용 편향이 사회구성원들을 범주화하고 구분하는 작용을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어떤 대상의 행동과 특성을 묘사하는 서술의 내용과 형식이 특정 사회범주의 고정관념을 강화시키고 사회적으로 공유된 표상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지각된 범주 실체성(perceived category entativity)과 지각된 범주 본질주의(perceived category essentialism)과 같은 인지심리학적 개념들을 사회범주에 대한 고정관념 형성에 접목하여, 커뮤니케이션 맥락에서 사용되는 언어적 명칭과 서술들이 어떻게 범주 실체성과 본질주의를 강화하며 공유된 고정관념을 형성하는지 그 인지적 메커니즘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Beukeboom과 Burgers(2019)의 모형을 바탕으로 한국의 성별, 세대, 이념/정치 갈등을 조장

하는 언어적 편향들을 살펴보았을 때, 몇 가지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우리 사회는 유독 사회집단과 범주를 구분하는 명칭을 자주 사용하는 편향이 있다. 특정 사회범주를 지칭하는 명칭은 그 범주의 경계와 실체가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범주의 지각적 실체성을 높이고, 지각적 본질주의를 높여, 사회 구성원들을 범주적으로 구분함으로써 집단간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와 상응하는 대표적인 예가 새로운 세대명칭의 잦은 사용일 것이다. 신세대, X세대, 밀레니엄세대, MZ세대 등, 10년이 멀다하고 성인기에 접어든 20~30대를 지칭하는 새로운 세대명칭은 계속 등장하였다. 과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늘 출현할 수밖에 없는 젊은 세대가 매번 새로운 독특한 특성을 갖는 것일까? MZ세대는 개인주의적이고, 이미 장년이 된 X세대는 집단주의적일까? 앞서 소개한 호규현 등(2023)의 연구를 상기하면, 실제 MZ세대로 지칭될 수 있는 연구참가자들은 MZ세대로 대표되는 성격 특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많은 개인차와 다양성이 존재했다. 세대 구분을 넘어 늘 존재하는 개인차와 다양성은 무시하고, 같은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을 같은 성향을 가진 사회범주로 인식하고 다른 기성세대와 구분하여 이해하려는 시도가 만들어내는 세대 구분과 새로운 세대명칭은 그 의도와 상관없이 그 세대의 지각적 범주 실체성을 높이고, 그 세대가 본질적인 상향을 가진 집단으로 인식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성별에 따른 구분과 이념/정치 집단을 구분하는 명칭에는 유독 혐오와 조롱의 의미가 담긴 수식어나 형태소가 결합된 명칭이 많은데, 이는 명칭 내용 자체에 상대 집단에 대

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효과를 지닌다. 그리고 이 경우 이분법적인 집단 구분으로, 존재할 수 있는 소수집단(예, 성정체성이 다른 사람, 또는 좌우/진보-보수가 아닌 다른 정치적 지향을 집단)에 대한 인식을 가로막아 더욱 대립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정복(2024)의 연구에서 지적했듯이, 성별 갈등 새말이 성차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고저와 함께 증감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갈등이 새말을 만드는지, 새말이 갈등을 조장하는지 그 인과 관계성은 아직 모호하지만,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언어의 잦은 사용은 사회갈등을 결코 낮출 수는 없을 것이다.

셋째,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서술이 일치하지 않는 서술보다 더욱 빈번히 나타나는 고정관념 일치 서술 편향(stereotype-consistency bias)을 한국 사회의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소위 맞장구라 표현되는 ‘맞아 맞아’, 혹은 ‘그치 그치’와 같은 동조를 표현하는 말이 일상 대화에 자주 등장함을 알 수 있다. 개인의 행동을 총칭명사나 일반화된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집단의 고정관념적인 특성으로 표현할 때,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기 쉽다. 그리고 개인의 다양한 의견 표현을 저극적으로 권장하기보다, 오히려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이 나오면 유별나게 인식하는 집단적 커뮤니케이션 패턴은 주된 의견이 바람직하지 못한 편견이라 할지라도, 집단갈등을 유발하고 심화하는 의견이라도 쉽게 반박되지 못하고 암묵적인 동조를 얻는 상황을 만든다고 할 수 있다.

언어는 매일 같이 접하고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처럼 친숙한 것이어서, 언어의 효과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

많은 연구들이 미묘한 언어 표현이나 형식의 차이가 실제 사회적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를 바꾼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Fausey & Boroditsky, 2010; Formanowicz & Hansen, 2022; Idan et al., 2018; Rhodes et al., 2019). 예를 들어, Idan 등(2018)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포용 정책을 명사를 사용하여 서술하는지, 동사 사용해서 서술하는지에 따라 그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수준이 달라짐을 보였다. 일정 지역을 팔레스타인에게 분할하는 정책을 분할하기(dividing)이라는 동사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에 비해, 분할(division)이라는 명사로 사용하여 기술할 때 이미 행해져 바꿀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여져 더 많은 분노와 반대를 초래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하였다. 이제는 이미 전쟁으로 치달아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이런 민감한 정치적 이슈를 전달하는 매체에서 사용되는 용어 하나하나가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생각해 보게 한다.

최근 한국의 상황을 보면 정말 위태롭다. 갈등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격심한 정치갈등 외에도 성별, 세대, 각종 사회갈등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며, 각종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거리낌 없이 표출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커뮤니케이션 규범이나 법적 제재가 작동하지 않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개인방송 등에서 집단간 갈등과 혐오가 비즈니스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전창영 등, 2018). 특히,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언어적 차별과 적대행위를 단지 말일 뿐이라는 가벼운 인식으로 그 심각성을 쉽게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조명현, 안도연, 2022). 그리고

본 논문은 인터넷 상의 거친 혐오표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어떤 사람의 행동을 기술할 때, 무심코 그 사람을 특정 사회범주로 지칭하거나 일반화하여 서술하는 것 또한 분명하지 않은 사회범주를 실체성과 본질적 속성이 있는 것처럼 지각하게 함으로써 사회갈등을 조장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소개한 이론과 해석이 모두 실증적으로 검증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 앞서 소개한 한국의 사회갈등에 관한 연구는 사회학이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사회언어학 분야에서 사회갈등과 구조의 특성을 밝히거나, 언론, 미디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현상에 대한 분석이 대부분이며, 한국의 사회갈등의 문제를 실증적으로 다룬 심리학 연구는 매우 드물다(정안숙 등, 2017). 그것은 사회갈등 상황을 연구 목적을 조작하거나 연출하기 힘든 까닭도 있다. 그러나 앞서 소개한 Idan 등(2018)의 연구처럼 실험 목적으로 조작한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참가자들의 사회적 이슈나 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예, 이운정 2023; 엄상현 등, 2024). 사회범주 및 고정관념 의사소통 모형을 제안한 Beukeboom과 Burgers도 시나리오를 사용한 후속 연구를 통해 그들의 이론의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있다(예, Burgers & Beukeboom, 2020). 따라서 앞으로 필요한 것은 한국의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언어적 명칭과 표현을 정리, 분석하고, 이러한 명칭과 표현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일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무심코 사용되는 언어가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정도나 재미와 유머라는 가면을 쓰고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차별과 혐오 표현의 위해성을 실증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보

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권경득, 임동진 (2017). 한국의 공공갈등 발생 현황 및 해결방법에 관한 연구 - 1948~2014년 공공정책갈등사례 DB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6(2), 167-200.
- 김선기 (2014). 세대연구를 다시 생각한다: 세대주의적 경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 **문화와 사회**, 17, 207-248.
- 김신우, 조준형, 이형철 (2021). 심리적 본질주의와 범주표상. **인지과학**, 32(2), 55-73.
- 김지수, 윤석민 (2019).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혐오발언은 어떻게 비즈니스가 되는가?: 유튜브 및 아프리카 TV 토크/캠방 방송에서의 여성혐오발언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33(3), 45-79.
- 김하수, 조태린 (2008). 한국 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접근. **사회언어학**, 16(1), 79-104.
- 박경리 (1994). **꿈꾸는 자가 창조한다**. 도서출판 나남.
- 박대아 (2021). 남성혐오표현과 여성혐오표현의 상호작용 연구-반사형(反射型) 혐오표현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76, 95-118.
- 박재홍 (2009). 세대명칭과 세대갈등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제와사회**, 81, 10-34.
- 방지은, 최영은 (2014). 한국 3세 아동의 총칭성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7(1), 179-196.
- 서문기 (2004). 한국의 사회갈등 구조 연구: 갈등해결 시스템을 모색하며. **한국사회학**, 38(6), 195-218.
- 양정은 (2019). 한국적 집단주의(우리성, *wenness*)가 대인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5), 1-14.
- 엄상현, 정선호, 이동훈 (2024). 상해 의도성과 사건 기술 방식에 따른 사건해석의 차이: 능동문과 피동문의 조절된 매개효과. **담화와인지**, 31(3), 1-29.
- 연지영, 이훈 (2020). 혐오가 유머를 만날 때: 타인 혐오를 증폭시키는 유머와 한국 사회의 젠더갈등에 대한 함의. **한국정치학회보**, 54(4), 219-250.
- 유유현 (2010). 총칭성과 정보구조. **텍스트언어학**, 28, 129-149.
- 유희정, 이숙중 (2016). 한국사회 갈등의 원인 및 관리에 대한 연구: 갈등유형별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17(1), 39-80.
- 윤하나, 김상호 (2018). 욕망을 추동하는 커뮤니케이션의 거리와 혐오의 일상화. **언론과 사회**, 26(1), 5-33.
- 이길용 (2009). 장애인 차별 언어의 양태에 관한 연구. 2009년 **담화·인지언어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5-45.
- 이승모, 홍진이, 하동현 (2019).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인식의 변화와 특성 분석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33(4), 145-173.
- 이윤정 (2023). 혐오 정서가 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 범죄현장으로부터 유발된 혐오와 성 소수자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혐오.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9(4), 537-567.
- 이정복 (2024). 성별 갈등 새말과 언어 태도. **한국어학**, 103, 71-106.
- 이재경 (2008). 한국의 저널리즘과 사회갈등:

- 갈등유발형 저널리즘을 극복하려면: 갈등 유발형 저널리즘을 극복하려면. *커뮤니케이션 이론*, 4(2), 48-72.
- 이향수, 박상희 (2017). 집단 실체성의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31(2), 101-126.
- 장경현 (2021). 신조어 비하 표현의 특성 연구. *우리말글*, 90, 1-24.
- 전영철 (2003). 한국어 총칭표현들의 의미론적 분석. *언어학*, 37, 267-296.
- 전창영, 나은희, 최철호, 김민정 (2018).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혐오표현 통신심의에 대한 탐색적 고찰: 온라인 혐오표현의 실태 및 규제 현황. *방송통신연구*, 70-102.
- 전형준 (2010). 미디어 이용과 공공갈등 인식의 상관관계 분석. *한국언론학보*, 54(3), 167-184.
- 정안숙, 어유경, 한규석 (2017). 국내의 사회문제에 대한 심리학 연구의 경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1994~ 2015) 게재 논문에 대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3(2), 159-181.
- 조명현, 안도연 (2022). 청소년의 샤펜프로이데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인식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8(4), 597-625.
- 조성남, 윤옥경 (2000). 가치관과 행위양식의 세대간 차이와 유사성. *사회과학연구논총*, 5, 103-135.
- 하창현, 박상희 (2022). 집단 구성원의 피부색이 집단 실체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와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의 이중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36(4), 233-252.
- 호규현, 심승범, 조재희 (2023). 정말 MZ 세대 직원은 까다로운 개인주의자일까?: 미디어에서 묘사된 MZ 세대 조직원 특징에 대한 당사자의 주관적 인식연구. *한국언론학보*, 67(1), 272-315.
- 홍주현, 나은경 (2016). 온라인 혐오표현의 확산 네트워크 분석: 이슈 속성별 확산 패턴 및 혐오표현의 유형과 강도. *한국언론학보*, 60(5), 145-175.
- 황슬하, 강진숙 (2014). 온라인 여성호명 담론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방송학보*, 28(4), 356-388.
- SBS 미래팀 (2021.8.25). [취재파일] 대체 '민'자가 누구야? SBS.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41080&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SEND](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41080&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SEND).
- Beike, D. R., & Sherman, S. J. (1994). Social inference: Inductions, deductions, and analogies. In R. S. Wyer & T. K. Srull (Eds.), *Handbook of Social Cognition: Basic processes; Applications* (2nd ed., Vol.1, pp. 209-285). Hillsdale, NJ: Erlbaum.
- Beukeboom, C. J., & Burgers, C. (2019). How stereotypes are shared through language: a review and introduction of the social categories and stereotypes communication (SCSC) framework. *Review of Communication Research*, 7, 1-37.
- Borgh, A. M., Barca, L., Binkofski, F., Castelfranchi, C., Pezzulo, G., & Tummolini, L. (2019). Words as social tools: Language, sociality and inner grounding in abstract concepts. *Physics of Life Reviews*, 29, 120-153.
- Bratanova, B., & Kashima, Y. (2014). The "Saying Is Repeating" Effect: Dyadic Communication

- Can Generate Cultural Stereotype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54(2), 155-174.
- Burgers, C., & Beukeboom, C. J. (2020). How Language Contributes to Stereotype Formation: Combined Effects of Label Types and Negation Use in Behavior Descriptions. *Journal of Language and Social Psychology*, 39(4), 438-456.
- Chomsky, N. (1986). *Knowledge of Language: Its Nature, Origin, and Use*. New York: Praeger.
- Colleoni, E., Rozza, A., & Arvidsson, A. (2014). Echo chamber or public sphere? Predicting political orientation and measuring political homophily in Twitter using big data. *Journal of Communication*, 64(2), 317-332.
- Crandall, C. S., Eshleman, A., & O'Brien, L. (2002). Social norms and the expression and suppression of prejudice: The struggle for internal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3), 359-378.
- Dasgupta, N., Banaji, M. R., & Abelson, R. P. (1999). Group entitativity and group perception: associations between physical features and psychological judg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5), 991-1003.
- Dovidio, J. F., Hewstone, M., Glick, P., & Esses, V. M. (2010). Prejudice, stereotyping and discrimination: Theoretical and empirical overview. *Prejudice, Stereotyping and Discrimination*, 12, 3-28.
- Etcoff, N. L., & Magee, J. J. (1992). Categorical perception of facial expressions. *Cognition*, 44(3), 227-240.
- Fausey, C. M., & Boroditsky, L. (2010). Subtle linguistic cues influence perceived blame and financial liability. *Psychonomic Bulletin & Review*, 17(5), 644-650.
- Fiske, S. T., & Neuberg, S. L. (1990). A Continuum of Impression Formation, from Category-Based to Individuating Processes: Influences of Information and Motivation on Attention and Interpretation.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3, pp. 1-74). Academic Press.
- Formanowicz, M., & Hansen, K. (2022). Subtle linguistic cues affecting gender in (equality). *Journal of Language and Social Psychology*, 41(2), 127-147.
- Fugate, J. M. (2013). Categorical perception for emotional faces. *Emotion Review*, 5(1), 84-89.
- Gelman, S. A. (2003). *The essential chil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elman, S. A., Coley, J. D., Rosengren, K. S., Hartman, E., Pappas, A., & Keil, F. C. (1998). Beyond Labeling: The Role of Maternal Input in the Acquisition of Richly Structured Categorie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3(1), i-157.
- Gelman, S. A., Ware, E. A., & Kleinberg, F. (2010). Effects of generic language on category content and structure. *Cognitive Psychology*, 61(3), 273-301.
- Haslam, N., Rothschild, L., & Ernst, D. (2000). Essentialist beliefs about social categorie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9(1), 113-127.
- Hocker, J. L., & Wilmot, W. W. (2007). *Interpersonal Conflict*, 7<sup>th</sup> ed. New York, NY:

- McGraw-Hill Education.
- Holtgraves, T. M., & Kashima, Y. (2007). Language, Meaning, and Social Cogni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2* (1), 73-94.
- Idan, O., Halperin, E., Hameiri, B., & Reifen-Tagar, M. (2018). A rose by any other name? A subtle linguistic cue impacts anger and corresponding policy support in intractable conflict. *Psychological Science, 29*(6), 972-983.
- Levin, D. T., & Angelone, B. L. (2002). Categorical perception of race. *Perception, 31*(5), 567-578.
- Lupyan, G. (2012). Linguistically modulated perception and cognition: The label-feedback hypothesis. *Frontiers in Psychology, 3*, 54.
- Moskowitz, G. B. (2005). *Social Cognition: Understanding Self and Others*. NY, NY: The Guilford Press.
- Repp, B. H. (1984). Categorical perception: Issues, methods, findings. In *Speech and language* (Vol. 10, pp. 243-335). Elsevier.
- Rhodes, M., Leslie, S. J., & Tworek, C. M. (2012). Cultural transmission of social essentialism.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9*(34), 13526-13531.
- Rhodes, M., Leslie, S. J., Yee, K. M., & Saunders, K. (2019). Subtle linguistic cues increase girls' engagement in science. *Psychological Science, 30*(3), 455-466.
- Roberson, D., & Davidoff, J. (2000). The categorical perception of colors and facial expressions: The effect of verbal interference. *Memory & Cognition, 28*(6), 977-986.
- Rosch, E., Mervis, C. B., Gray, W. D., Johnson, D. M., & Boyes-Braem, P. (1976). Basic objects in natural categories. *Cognitive Psychology, 8*(3), 382-439.
- Schellenburg, J. (1982). *The Science of Conflic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emin, G. R., & Fiedler, K. (1988). The cognitive functions of linguistic categories in describing persons: social cognition and langua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4), 558-568.
- Susskind, L., McKearney, S., & Thomas-Lamar, J. (1999). *The Consensus Building Handbook*. London: Sage.
- Witzel, C., & Gegenfurtner, K. R. (2013). Categorical sensitivity to color differences. *Journal of Vision, 13*(7), 1-33.
- 논문 투고일 : 2024. 10. 07  
1 차 심사일 : 2024. 11. 04  
게재 확정일 : 2024. 11. 21

## What Language triggers Social Conflicts in Korea? Focusing on the Social Category and Stereotypes Communication Framework

Donghoon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Korea is experiencing significant social conflicts across various issues, including class, gender, generation, political ideology, and religion. While there are numerous studies in the fields of politics, administration, and sociology that aim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e and types of social conflicts or explore management strategies from a macro perspective based on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se conflicts, there is a lack of psychological research explaining the phenomenon of social conflicts intensifying during individual communication processes. This paper aims to examine social conflicts in South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verbal communication, with the goal of understanding the psychological mechanisms behind language that triggers social conflicts. To achieve this, the Social Category and Stereotypes Communication Framework proposed by Beukeboom and Burgers (2019) is addressed and the psychological mechanisms are explored through which linguistic labels and descriptive biases used in communication can form and reinforce stereotypes related to social categories. The framework is then applied to the South Korean context, analyzing several linguistic labels and descriptive biases that fuel conflicts related to gender, generation, and ideology/politics in the country. Finally, this article asserts that subtle differences in carelessly used language can amplify social conflicts, emphasizing the need for future empirical research to scientifically examine the effects of linguistic labels and descriptive biases used in South Korean society.

*Key words* : social conflict, social category, stereotypes, category-entitativity, category-essentialism, labeling bias, stereotype-inconsistency bias.